

사용자 심층면담 분석을 통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공간계획 지표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지속거주 관점을 중심으로 -

Spatial Planning Indicators for Elderly Welfare Facilities

- In-Depth User Interviews with a Focus on Community Sustainable Living -

Author 문자영 Moon, Ja-Young / 정희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이학박사
황연숙 Hwang, Yeon-Soo / 정희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이학박사*

Abstract As Korea society, housing welfare issues for the elderly are becoming ever more prominent. In 2015, the government combined the provision of housing and welfare services for pensioners through the Senior Welfare Housing Project, allowing the elderly to enjoy their retirement years, living together in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user-centered planning elements for the spatial design of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housing and to offer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spatial planning to support sustained community living in the future. The research method is an in-depth interview survey, and the subjects are a total of 24 seniors who use senior welfare housing welfare facilities in rural and urban areas. The overall usage status, needs, issues, and problem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First, it is believed that senior welfare housing welfare facilities are well-established and allow seniors form communities to interact with neighbors. Second, the interview results showed that experiences at welfare facilities are not regional differences, but rather differ depending on the degree of a resident's physical independence, the type of residence, and the purpose of use. Third, by utilizing the existing spatial planning indicators of the community's continued residence perspective, a new planning indicator reflecting the user's perspective was derived. By providing a future improvement plan for welfare facilities in senior housing through this study, it is anticipated that accessibility within the local community will be crucial, allowing these facilities to serve as a key hub for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Most importantly, a comprehensive plan that integrates life, medical, and care services in a connected and holistic manner is necessary to meet the evolving needs of senior residents.

Keywords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공간계획, 지역사회 지속거주, 심층면담
Senior Welfare Housing Facility, Space Planning, Community Sustainable Residence, UserIn-depth Interview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25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2036년은 30.9%, 2050년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23). 여기에 초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고령화 사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노인 빈곤 문제와 노후주택 거주에 따른 안전문제, 노인 부양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도 가중화 될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고령자층의 주거복지의 문제점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주거 복지정책을 개발중에 있다. 그러한 출발점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국토교통부, 2015). 고령자복지주택은 지역에서 거주하던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고령자 맞춤 설계가 반영된 주거와 건강, 돌봄 등의 서비스를 위한 복지시설이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층부의 복지시설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노인들이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 돌봄을 통해 고령자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한다. 이처럼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ysh@hanyang.ac.kr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 공간이라 할 수 있다(Moon & Hwang, 2023). 따라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관점으로 사용자 즉, 고령자가 무엇을 원하고,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들의 주요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 관점의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 심층면담 조사를 통하여 사용자 관점이 고려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공간계획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측면이 고려된 계획요소들을 도출하여 향후 지역사회 지속거주 관점의 공간계획 개선 방향 및 공간계획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2016년 이후 공급된 1, 2차 사업지이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개념 및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공간계획의 특성을 정리한다.

둘째, 본 연구의 심층면담 조사대상자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고,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방법을 정리한다.

셋째, 사용자 심층면담 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지속거주 관점의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이용현황, 니즈(needs), 이슈(issue) 및 문제점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다.

넷째,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사용자를 고려한 지역사회 지속거주 관점의 공간계획을 위한 개선방안 및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개념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사회 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한 노인가구 특화임대주택이다. 2015년 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등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이 정식 변경되었다. 법적 근거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하며, 입주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의 저소득층 어르신으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선정기준을 통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주택 저층부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식당, 헬스케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노인과 지역노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고령

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2019.4.18.)에서는 입주자 등에게 건강관리·생활지원·문화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실버복지관 등 지자체 및 관리주체 협의 내용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2024년 1월 기준 80곳(8,098호)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3956호가 준공되었다(국토교통부, 2024).

2.2.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개념

지역사회 지속거주는 고령자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계속 나이 들어가며 살아가는 의미로써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용어로 정의된다. 익숙한 곳은 집에서 살던 지역사회 나아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의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다. Thomas & Blanchard(2009)는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있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AIP의 개념을 보완하는 ‘지역 공동체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기’의 ‘에이징 인 커뮤니티(Aging in Community; AIC)’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Janice(2013)는 지역사회 지속거주인 AIC 개념을 홀로 노후화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집에서 사는 것이 시설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만 신체적, 재정적 또는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미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정에서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노인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기능의 저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혼자 늙어가는 것이 아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구와 이웃이 서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체주의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과 공동체성에 AIC의 개념적 의미를 두었고, 관계 구축에 중요한 것은 지역 기반 커뮤니티 개발 접근법이며, 이 접근 방식은 커뮤니티와 개인의 요구에 대처하면서 개인과 그룹의 관심사 및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커뮤니티의 고령화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Joan, Elizabeth, & Marilyn(2016)는 지역사회 지속거주와 건강한 활동적 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잘 사는 법(Well-being)을 생각하고,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고령자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전체적인 접근 방식의 개발을 논하였고, 이에 대한 개념으로 AIC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Kathy, Debra, & Tiffany(2015)는 AIC가 노인들이 직면한 많은 문제 중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고, 이를 증진하고 최대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더 넓은 지역

사회(공동체) 속에서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지역사회 거주자의 기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Stone(2016)은 AIC를 위해 주택, 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미국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고령자를 수용하는데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 위험이 높아지더라도 지역사회에 남을 수 있도록 기존 주택과 이웃의 변화에 중점을 둔 정책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Joan Weiss(2016)은 개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 및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Aging in Community(AIC)의 개념은 현재 거주 중인 자택에서 지역사회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며 지역 커뮤니티 역할의 강조와 이웃과 공동체주의적 사고방식이 중요함을 밝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Park & Park(2015)는 기존 AIP가 익숙한 집,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노인 당사자와 지역사회 환경과의 관련성,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 및 고령 친화적인 근린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설계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국내 지역사회 지속거주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시재생, 근린환경 계획에 있어서도 AIC 개념적 정의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Nam, 2020; Kho, 2020). 궁극적으로 AIP와 AIC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정주(定住)의 욕구이며, 이러한 이념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방향성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3.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공간계획 특성

국내외 연구의 흐름을 보면, 주로 살던 곳 개별 주택 범위내로 한정되어 있었던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물리적 환경 범위가 지역사회 범위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 돌봄) 등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개념은 고령자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 지속거주 개념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돌봄 측면 등의 서비스 환경, 이와 함께 자립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경제적 환경도 뒷받침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Moon & Hwang(2023)은 지역사회 지속거주(AIC)를 위한 평가지표 도구로써 물리적, 사회·경제적, 서비스 환경을 기준으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에 대한 AIC 개념을 고려한 평가지표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평가지표에서 구축한 물리, 사회·경제, 서비스 환경 지표 내용을 토대로 공간계획에 필요한 실제 사용자 관점이 반영된 세부 계획지표를 새롭게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AIC 개념의

물리적 환경은 주변 교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포함하여 고령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안전성, 노인들의 신체 및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건강을 유지·향상 시켜줄 수 있는 쾌적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의 편의성, 공간적 변화 대응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특성인 융통성으로 분류되었다. 사회·경제적 환경은 고령자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이웃·주민들과의 교류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보다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으로써 사회참여성, 교류성, 공동체성, 경제친화성으로 분류되었다. 서비스 환경은 입주노인을 비롯하여 지역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으로써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성과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서비스 접근성, 사용자가 개별 및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별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의 서비스 전문성으로 분류되었다. 물리, 사회·경제,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는 계획특성 및 평가지표와 개념적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역사회 지속거주(AIC) 관점의 공간계획 특성 및 지표와 내용

구분	공간특성	평가지표	개념적 내용
물리적 환경	접근성	입지환경	입지 및 진입환경의 접근이 용이한 환경
		진입환경	
	안전성	안전관리	고령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환경
		비상상황	
		사고예방	
	쾌적성	쾌적한 실내	신체 및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건강을 유지·향상 시켜줄 수 있는 환경
		자연친화	
		건강친화	
	편의성	분위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편리한 이동	
		사인계획	
사회· 경제적 환경	융통성	편의성 환경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공간 환경
		변화대응	
		충분한 공간	
	사회 참여성	연계적 공간	다양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환경
		사회참여 프로그램	
		사회참여 공간	
	교류성	프로그램 정보 접근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환경
		내부 커뮤니티	
		프라이버시	
	공동체성	세대교류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
		지역사회 교류	
		공동체 형성	
서비스 환경	경제 친화성	재정지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환경
		환경친화설계	
		유지관리	
	통합성	연계적 서비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서비스
		지속적 서비스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정보 접근성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쉽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서비스 이용 접근성	
		서비스 제공	
	개별성	서비스 공간 접근성	사용자가 개별 및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개별 서비스	
		사생활 보장	
	서비스 전문성	인력의 전문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
		자원봉사자지원	

출처: Moon & Hwang(2023), p.11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이용 노인으로 고령자복지주택 거주자와 지역 노인 두 사용자 유형의 범주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¹⁾ 지역적 범위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전 지역 단위에 분포하는 특성에 따라 도심형과 농촌형 노인 각 12명씩 총 24명²⁾을 조사하였고, 도심형의 경기권 4곳과 농촌형의 충청권 1곳, 호남권 1곳, 강원권 1곳의 7곳 시설 이용자로, 지역별로 2~4명을 기본으로 조사하였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노인이 14명이고, 지역 이용 노인이 10명이며, 가족구성은 단독구성이 21명, 부부 구성이 3명이 포함되었다. 신체자립도에 따른 비교적 건강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 18명과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등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 6명이 포함되었고, 성별은 남성 6명, 여성 18명이 포함되었다. 연령은 60대 6명, 70대 14명, 80대 4명으로 평균 74.6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 거주기간은 고령자복지주택 거주노인의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까지 나타났고, 지역노인의 경우 5년 이상부터 30년 이상까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구구성, 건강상태 등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³⁾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f)	%	구분	내용	빈도(f)	%
성별	남성	6	25%	가족 구성	단독	21	87.5%
	여성	18	75%		부부	3	12.5%
연령	60대	6	25%	주관적 건강상태	자립	18	75%
	70대	14	58.3%		반자립	6	25%
	80대	4	16.7%		보조기구 사용	6	25%
거주 유형	입주노인	14	41.7%	이용	사용X	18	75%
	지역노인	10	8.3%		경기권A	4	16.7%
거주 기간	1년 미만	2	8.3%	거주 지역	경기권B	2	8.3%
	1년 이상~5년 미만	14	58.3%		경기권C	3	12.5%
	5년 이상~10년 미만	1	4.2%		경기권D	3	12.5%
	10년 이상~20년 미만	1	4.2%		호남권	5	20.8%
	20년 이상~30년 미만	0	0%		충청권	3	12.5%
	30년 이상	6	25%		강원권	4	16.7%

3.2. 조사내용

먼저 기본적인 조사대상자의 기초정보와 복지시설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형식의 조사내용을 작성하게 한 후 1:1 대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앞서 물리, 사회·경제,

서비스 기반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공간계획 지표를 토대로 사용자 관점의 구체적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진행하였고,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인식, 요구사항, 불편사항, 주요이슈,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환경개선, 불편한 점, 바라는 점 등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연관된 질문들을 비교적 쉽게 설명하면서 진행하였다. 아울러 고령자들은 본인이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이한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 구조화 질문을 모두 질문하되, 응답자의 관심과 욕구가 높은 경험(항목)을 더 구체적이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고령자가 원하는 니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조사는 조사대상자를 1:1 대면하여 총 7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해당 시설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실 등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설문형식 조사내용은 SPSS Statistics V.28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량을 활용하였고,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은 인터뷰 결과를 체계화하고 해석하기 위해 친화도법(Affinity Diagram)⁴⁾을 활용하였다. 사용자 심층조사에서 수집된 내용의 개별화된 데이터를 텍스트화하였고, 이를 유사성이 있는 항목끼리 그룹화시켜 상위항목으로 좁혀 나갔으며, 최종적으로 그룹화된 의미 있는 상위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그룹화된 각 주제의 상위범주는 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공간계획 특성의 지표로 정의하고, 하위범주는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귀납적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의 공통된 고충과 니즈(needs)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분석결과 <표 17>에서 하위범주의 강도를 감정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욕구가 강조되는 계획지표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정적 의견(항목)은 욕구가 강한 항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중치 점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여 3점, 중립 2점, 긍정 1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교수 각 1인의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조사결과 및 분석

4.1. 조사대상의 이용현황

조사대상 복지시설 이용현황 조사결과 이용자의 이용횟수는

4) 친화도법은 데이터를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면서 상위항목으로 범위를 좁혀가는 상향식(Bottom-up)기법이며, 사용자의 공통된 니즈(needs)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할 수 있다.

4~5회가 13명(54.2%)으로 가장 높고, 2~3회가 10명(4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은 1시간미만 9명(37.5%), 1~2시간 5명(20.8%) 순이며, 이용수단은 주로 걸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 이용자의 경우 걷거나 버스,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4명이 있었다. 이용목적은 점심식사가 11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취미·여가활동은 9명(23.1%), 배움·학습과 건강관리가 각 6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공간은 프로그램실(37.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이용현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이용현황 (n=24)

구분	내용	빈도(f)	%	구분	내용	빈도(f)	%
이용 횟수	주1회	1	43.2	이용 목적	건강관리	6	15.4
	주2~3회	10	41.6		취미/여가	9	23.1
	주4~5회	13	54.2		배움/학습	6	15.4
	계	24	100		친구만남	2	5.1
이용 시간	1시간미만	9	37.5		점심식사	11	28.2
	1~2시간	5	20.8		일자리	5	12.8
	2~3시간	4	16.7		계	39	100
	3~4시간	3	12.5	주 이용 공간	프로그램실	9	37.5
	4~5시간	3	12.8		경로식당	4	16.7
	계	24	100		물리치료실	3	12.5
이용 수단	걸어서	21	77.8		휴게공간	3	12.5
	버스	3	11.1		체력단련실	4	16.7
	자전거	1	3.7		당구장	1	4.2
	자가용	2	7.4		계	23	95.9
	계	51	200				

4.2. 심층조사 분석결과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관점으로써 물리적, 사회·경제적, 서비스 환경에 대해 이용 노인들의 인식과 불편사항, 필요 및 중요사항 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면담 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환경 분석결과

1) 접근성

접근성 분석결과 상위범주는 복지시설 위치, 교통 접근성, 근린시설 접근성, 진입로 접근성의 네 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은 주동 하부에 위치하여 무엇보다 입주 노인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전 살던 곳에 비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고, 도심형 노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10분 내로 다닐 수 있는 범위로 위치에 대한 불편사항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농촌 노인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버스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 버스 배차 간격 시간을 맞추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고, 추후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할 시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주변 편의시설 및 병원 접근성은 노인들의 하루 일과 중 중요한 루틴 중 하나이며, 특히 병원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접근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진입로 단차 접근성 문제가 나

타났는데 보행기를 이용하는 노인이나 지팡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단차를 같이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장애물로 인해 일부 노인의 경우 거리를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 불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입지 환경	복지시설 위치	· 복지관이 아래 위치하는 것이 매우 편리 · 복지시설과 집 접근성이 이사에 중요 요인 · 걸어서 10분 거리는 이용하기에 중요 요인 · 농촌 노인은 걸어서 10~20분 거리 이상 소요
	교통이동 접근성	· 셔틀버스 시간 배치시간 맞추기 어려움 · 복지시설과 가까운 횡단보도 설치 필요 · 버스정류장 접근성 중요
	근린시설 접근성	· 주변 상가, 편의시설 접근성 중요 · 병원 접근성 매우 중요, 작은 병원은 주로 도보 이용 · 주변 산책로는 하루 중 중요한 루틴 중 하나
진입 환경	진입로 접근성	· 복지시설 입구 계단 높이 단차가 높음 · 보행기 이용자의 진입로 이용 시 단차 높음 · 진입로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단차 같이 해소 필요

2) 안전성

안전성 상위범주는 화재예방 대비, 옥외공간 단차, 공간 폭 협소, 가구 안전성의 네 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입주노인의 경우 화재예방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종종 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경험이 있고, 그때마다 저층으로 내려오는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였다. 비상 통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이용이 쉽지 않은 제약요소가 따랐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하였다. 옥외공간 계단 이용 불편, 공간 폭 협소에 따른 이동 불편문제 및 안전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강당에 설치된 기둥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프로그램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안전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친 노인의 사례가 있었고, 이는 신체활동의 둔함으로 인해 순간적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 이용 가구에 있어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표 5> 참조).

<표 5>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비상 상황	화재예방 대비	· 화재예방 대비 정보 부족 및 필요 ·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불안 · 화재상황 대비를 위한 운영자와 인근 소방서의 연계
	옥외공간 단차	· 옥외공간 단차제거 필요
사고 예방	공간 폭 협소	· 강당 기둥 이동에 불편 요소 · 화장실 공간 폭 불편 요소 · 식당 공간 테이블 간격 협소
	가구 안전성	· 프로그램실 의자 이용 중 허리 다친 경험 있음 ·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의자 필요

3) 쾌적성

쾌적성 분석결과 상위범주는 실내환경, 옥외공간 쾌적성, 실내의 자연요소, 편안한 공간으로 도출되었다.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실내 쾌적성과 위생에 관련하여서는 크게 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사례의 경우 창문 개폐가 불가하여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쾌적성

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 불편한 요소로 나타났다. 실내환경과 달리 옥외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연요소의 도입은 좋지만 식물들을 많이 배치할 경우 관리를 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실내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실내 휴게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해 주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표 6> 참조).

<표 6> 물리적 환경의 쾌적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쾌적한 실내환경	실내환경	· 체력단련실 공기청정기 환기 순환 필요 · 강당 환기 문제
	옥외공간 쾌적성	· 복지시설 앞 화단 주기적 관리 필요 · 화단 위치 등 입주자 고려 필요
자연친화	실내외 자연요소	· 실내 식물관리 필요 · 다양한 실내식물 접촉 기회 필요 · 옥외 정원 분위기 변화 필요 (덧밭 등) · 옥상정원 덧밭, 휴식공간 함께 공간 마련 필요
건강친화	편안한 공간	· 편안하고 넓은 휴게공간 필요 · 휴게공간 부족, 좌식 공간 필요
	건강친화 공간	· 야외산책로 및 활동공간 필요 · 실내 산책 가능한 환경
분위기	개방감	· 공간이 답답하지 않도록 개방감 중요
	따뜻함	· 편안한 분위기, 밝고, 따뜻한 이미지 선호

4) 편의성

편의성 분석결과 상위범주는 수직이동 편의, 정보사인 편의, 가구기기 편의, 편의시설 제공으로 도출되었다. 엘리베이터는 옥상까지 이동이 가능 하도록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복지시설 주변 안내 사인이 눈에 띄지 않아 길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사인 높이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복지시설 내 다양한 테이블과 의자 배치 필요, 건강체크 관련 기기 사용법 안내 부족, 다양한 편의공간 제공 여부(복카페 등)가 도출되었다(<표 7> 참조).

<표 7> 물리적 환경의 편의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편리한 이동	수직이동 편의	·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부재하여 불편
사인 계획	정보사인 편의	· 엘리베이터앞 정보 글씨 크기 부족 · 복지시설 도로 안내판 크기 부족 · 실내 게시판 위치와 글씨 크기 부족
편의 공간	편리한 가구기기	· 다양한 규모의 테이블과 편안한 소파 배치 · 건강체크 기기 및 컴퓨터 사용법 등 안내 부족
	편의시설 제공	· 공동 사우나, 카페공간, 휴게공간 요구

5) 융통성

융통성 분석결과 상위범주는 공간규모 협소와 공간확장이 도출되었다. 주로 복지시설 공간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점, 편의시설 공간 부족 등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규모가 작다는 의

견 동시에 이러한 복지시설이 특수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규모가 작더라도 집 앞에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더 만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내공간의 부족함은 옥외공간 확장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외부 자연환경 요소를 잘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외부 산책로 조성, 옥상정원, 덧밭 등이 잘 계획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방치되고 있는 실내공간을 잘 활용하면 공간 규모 협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표 8> 참조).

<표 8> 물리적 환경의 융통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충분한 공간	공간규모 협소	·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이 작다고 느낌 · 체력단련실 공간 협소 · 프로그램실 공간 협소 · 오전시간 자리 부족
	공간 확장	· 외부 공간 확장 방법(산책길, 정자, 옥상정원 등) · 실내 방치 공간 활용 방법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결과

1) 사회참여성

사회참여성 상위범주는 이용자 수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노년 삶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여가문화 공간, 프로그램 정보 접근성으로 도출되었다. 사용자들은 연령별, 신체특성, 종교 활동 등 개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노년의 삶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 활동적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공연장과 같은 문화·여가공간 및 일부 사례의 경우 실내 스포츠 공간의 부재가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활동 프로그램 정보는 주로 게시판이나 직원, 이웃·친구들을 통해 얻으며, 게시판 정보 글씨 크기, 위치 등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표 9> 참조).

<표 9> 사회·경제적 환경의 사회참여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령, 신체, 수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 다양한 욕구·연령에 맞춰 프로그램 수준 향상 필요 · 활동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 휠체어 이용노인 배려 프로그램 필요 · 종교 행사 프로그램 필요
	노년 삶을 위한 교육	· 노년 삶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교육 강좌 필요 ·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활동 지원 필요 ·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 욕구 높음
사회참여 공간	여가문화 공간	· 다양한 볼거리, 공연을 위한 공연장 욕구 · 악기공연 프로그램을 위한 방음 공간 필요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정보 접근성	· 정보게시판과 직원들을 통해 정보 습득 · 이웃·친구와의 소통 정보가 가장 빠르다고 인식

2) 교류성

교류성 상위범주는 교류공간으로서 복지시설 인식, 소극적 교류, 우울감 해소 공간, 필요 교류공간, 입주민 프라이버시로 도출되었다.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

리 만나고,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재미,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교류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복지시설은 집과 같은 친근한 공간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집에 혼자 있는 것 보다 오면 가족 같은 이웃들이 모여 하루를 같이 머물다 가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사람과의 교류를 통한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아직 복지시설에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낮설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노인의 경우 쉽게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새로 이주한 노인들 간 교류 부족은 다시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거주 만족도까지 낮추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잘 적응하고, 사람들과의 접촉과 교류에 따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곳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교류 활동을 위한 필요 공간으로 카페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반자립형 노인들은 주로 집 앞이나 벤치, 정자 정도가 유일한 교류의 장소였다. 한편, 입주 노인과 지역 이용 노인들 간 출입 동선에 따른 마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이용 노인들은 입주 노인의 동선과 마주치지 않도록 돌아가야 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표 10> 참조).

<표 10> 사회·경제적 환경의 교류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내부 커뮤니티	교류공간으로서 복지시설의 긍정적 인식	· 이웃과 왕래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집과 같은 공간 ·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남 교류가 쉬운 공간 · 동아리 활동, 식사 등을 함께하는 재미있는 공간 ·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공간 · 오랫동안 살던 동네 친구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
	소극적 교류	· 아직 낯설고, 접촉을 피하는 편임 · 삶의 의욕이 적어 적극 교류 활동이 적은 편임
	우울감과 고독감 해소 공간	· 고독감과 답답함을 해소하는 공간 · 외로움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공간
	필요 교류 공간	· 소통을 위한 편안한 휴게공간 필요 (소파, 테이블) ·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필요 (실버카페) · 경로당은 멀리 나가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중요한 공간 · 옥외공간은 저녁시간에도 교류할 수 있는 공간
프라이버시	입주민 프라이버시	· 입주노인과 지역 이용 노인의 마찰이 종종 있음 · 입주 노인 출입동선과 분리 요구

3) 공동체성

공동체성 분석결과 상위범주는 세대교류의 부정적 인식, 세대교류의 긍정적 인식, 지역사회 개방, 이웃 안부,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도출되었다. 세대교류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세대 간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차이에 따른 소통의 문제로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교류가 좋다는 의견과 다른 세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세대교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교류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보다는 서로가 굳이 모여 교류를 왜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로 보였다. 지역사회 개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에는 이용에 혼란이 있는 부분도 간혹 있었으나 입주노인과 지역노인들이 서로 구분 없이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노인들은 서로가

이웃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서로 공동체를 이룬다고 인식하였으며, 서로 서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복지시설에서의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공동식사 프로그램은 이웃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관계를 맺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사회경제적 환경의 공동체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세대 교류	부정적 세대교류 인식	· 살아온 과정 차이 때문에 소통이 잘 안된다고 생각함 · 노인과 젊은 세대 공간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 세대교류 공간보다 노인을 위한 건강공간이 더 필요 · 세대교류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본적 없음
	긍정적 세대교류 인식	· 세대교류 프로그램 및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 · 세대교류 공간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지역 사회 교류	지역사회 개방	· 지역노인과 입주노인 구분 없이 어울리는 것이 중요 · 지역사회 개방공간이 되어야 함
공동체 형성	이웃 안부	· 이웃안부 확인, 음식 공유 등을 통해 공동체 형성 · 같은 층을 사는 노인끼리 서로 안부와 정보 공유
	공동체 프로그램	· 이웃 공동체 프로그램은 인지정서에 도움이 됨 ·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고독감 해소는 중요함 · 함께 요리하는 식사프로그램은 공동체 형성에 도움

4) 경제친화성

경제친화성 분석결과 상위범주는 일자리 활동의 긍정적 인식, 노후 경제상황의 두 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경제적 도움 외에도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노후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관계형성 및 정서지원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복지시설은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복지시설 이용의 저렴한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입주노인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통한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어려움으로 더이상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병원비 외에 크게 지출하는 일이 없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경제적인 관리는 자식이 하고 있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표 12> 참조).

<표 12> 사회·경제적 환경의 경제친화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재정 지원	일자리 활동 긍정적 인식	· 혼자서 아닌 이웃과 함께 하는 일자리 프로그램 · 친목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복지시설 안에서 일자리 환경 매우 중요/만족 ·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삶의 활력 요소 · 일자리 활동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
	노후 경제상황	· 복지관 이용요금의 부담이 없어 만족함 · 기초수급으로 생활하고, 생활비 등 사용 · 자식이 경제 관리를 맡아 하고 있음

(3) 서비스 환경 분석결과

1) 통합성

통합성 분석결과 상위범주는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지속돌

봄 서비스 제공 두 가지가 도출되었다. 건강관리 의존도가 높은 반자립형 노인의 경우 복지시설 인접한 곳에 병원이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서비스를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높았다. 또한, 일부 사례는 복지시설 옆 건강케어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두 곳을 분리시킴으로써 이용에 불편함이 나타났고, 두 공간이 서로 연계하면 노인들이 건강 정보 및 케어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지역 연계 의료서비스에 관해 복지시설은 건강을 돌보는 공간이기 보다는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여 특별히 의료돌봄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다만, 보건소 정도가 연계되어 건강검진과 간단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혼자 사는 입주 노인들은 지속적 돌봄과 건강에 대해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는 같은 층에 사는 노인들끼리 의지하며, 서로 돌봄을 하고 있지만 언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자 측에서 혼자 사는 노인 돌봄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지시설이 집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표 13> 참조).

<표 13> 서비스 환경의 통합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연계적 서비스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 복지시설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욕구 · 인근 건강케어시설과 연계해서 서비스 공유 필요 · 복지시설과 지역병원 연계 필요 · 보건소와 연계하여 주치의 진료필요
지속적 서비스	지속돌봄 서비스 제공	· 건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 필요 · 건강의 지속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실 필요 · 상시 혈압체크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시스템 필요 · 복지시설 건강관련 정서적 안정감을 줌

2) 서비스접근성

서비스접근성 분석결과 상위범주는 서비스 정보 접근성, 응급상황 서비스, 건강의료 서비스 욕구, 건강서비스 욕구, 식사 및 생활지원 서비스 욕구, 서비스 공간 접근성으로 도출되었다. 복지시설 정보들은 주로 직원들을 통해 알 수 있으나 방송의 경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정보를 많이 놓치는 사례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자들이 입주 노인 현관문 앞에 정보를 붙여 놓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는 보호자가 멀리 있어 가족 대신 복지관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노인들은 건강·의료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물리·한방 치료, 복약지도, 영양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으며, 치매예방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신체 의존도가 높은 노인뿐만 아니라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도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공간에 대한 욕구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서비스 공간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주로 보행보조기 이용자에게서 나타났다. 휠체어

나 보행보조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 필요, 물리치료실 동선이 먼 것에 대한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이 나타났다. 식당 공간 이용 관련하여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때 마땅히 앉아 있을 공간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표 14> 참조).

<표 14> 서비스 환경의 서비스접근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서비스 정보 접근성	서비스 정보 접근성 부족	·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부족 · 안내방송 내용이 잘 안들림 · 일대일 정보 제공 서비스 욕구
서비스 이용 접근성	응급상황 서비스	· 입주 노인의 비상상황 대비 필요(고층에서 내려오기)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대신 대처 필요
	건강의료 서비스 욕구	· 한방·물리치료 서비스 욕구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 필요) · 영양교육, 복약지도 서비스 욕구 · 치매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욕구 (인지치료실 필요) · 치매전담실 혹은 지역 치매전문 병원 연계 운영 필요 · 실외 운동공간 욕구 · 건강체크 시스템은 건강관리에 도움
	식사/생활 지원 서비스 욕구	· 주3회(2회 이상) 식사서비스 욕구(입주노인) · 식사 밀반찬 배달 서비스 중요 · 양질의 식사서비스 중요 · 이·미용 서비스 제공 필요
서비스 공간 접근성	서비스 공간 접근성	· 건강증진 공간은 체력증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음 · 보행보조기 이용 시 물리치료실 접근성 떨어짐 · 서비스 공간 거치대, 전동휠체어 보관 장소 필요 · 서비스 공간 동선 불편(너무 멀리 떨어져지 않도록) · 식당 앞 대기공간 의사 없어 이용 불편

3) 개별성

개별성 분석결과 상위범주는 개별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자율성이 도출되었다. 입주노인 중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개별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로 복지시설과 연계된 병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케어, 운영자들의 관심, 자원봉사자를 통한 개별 안부 서비스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노인들만 사는 공간이지만 직원들이 상주해 있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입주노인 중에는 개별 건강에 대해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체력단련실이나 식사를 통해 건강에 도움을 받으나, 본인 건강에 직접적인 관리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강 프로그램에 관심을 본인 스스로 갖을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표 15> 참조).

<표 15> 서비스 환경의 개별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개별 서비스	개별 서비스 접근성	· 개별욕구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1:1 자원봉사자 안부서비스 필요 · 복지시설 지원의 개별 건강관리 관심 필요
	서비스 자율성	·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환경 · 개인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환경 필요

4) 서비스 전문성

서비스 전문성 분석결과 상위범주는 근무자 태도와 양질 서비

스를 위한 전문인력이 도출되었다. 근무자 태도에 관해서 불만의 소리도 나왔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제약들을 이해하면서도 직원들의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유가 억압받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었다. 그에 반해 모두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강사 책임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간문제와 책임감 결여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다. 전문인력에 관해서는 복지 시설 내 간호사 상주 및 상담인력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위에 이야기 할 사람이 없기도 할뿐더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상담사가 있었으면 하였다(<표 16> 참조).

<표 16> 서비스 환경의 전문성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지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내용)
인력의 전문성	근무자 태도	· 친근하고 편하게 대하는 태도 필요 · 직원의 건강관리 서비스 관심 필요 · 운영자의 특권역시 배제 필요 · 규정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배려하는 융통성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
	양질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 상담인력 배치 필요 ·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필요

4.3. 소결

본 연구의 사용자 심층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노인들은 주 4-5회 정도로 대부분 정기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용시간은 이용목적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1시간 미만에서부터 4-5시간까지 다양하였다. 이용수단은 대부분 걸어서 이용하였고, 이용목적은 점심식사, 취미 및 여가활동, 건강관리, 일자리 활동 등이 나타났다. 주 이용 공간은 프로그램실이 가장 높으나 식당, 체력단련실 등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사용자 심층면담 조사를 통해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융통성에 대한 주요 니즈(needs)를 발견하였으며, 상위범주를 통한 공간계획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먼저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공간계획 지표로 복지시설 위치, 교통이동 접근성, 근린시설 접근성, 진입로 접근성이 도출되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 및 교통 접근성에 대한 니즈가 주로 도출되었고, 주변 근린시설 이용에 관한 접근성의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안전성 공간계획 지표는 화재예방 대비, 옥외공간 단차, 공간 폭 협소, 가구 안전성이 도출되었으며, 그 중 화재예방에 대한 불안요소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설계가 일부 적용되었으나,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 그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단차, 공간 폭 등). 쾌적성 공간계획 지표는 실내환기 요소, 옥외공간의 쾌적성 요소, 실내외 자연요소, 편안한 공간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위생적인 부분보다는 주로 건강친화, 자연친화, 개방감의 편안한 공간들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자연요

소, 건강친화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의성 공간계획 지표는 수직이동 편의, 정보사인 편의, 편리한 가구기기, 편의 시설 제공이 도출되었고, 그 중 사인계획에 대한 불만 요소가 크게 나타났다. 융통성에서는 공간규모 협소, 그에 따른 내부 공간 확장이 도출되었으며, 모두 욕구가 크게 나타난 항목이었다.

셋째,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상위범주를 통한 공간계획 지표 도출 결과 사회참여성에서는 사용자 욕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노년 삶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여가·문화 공간, 프로그램 정보 접근성이 도출되었다. 크게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 정보 접근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교류성은 복지시설에서의 교류공간으로써의 인식 정도, 교류공간의 필요 공간, 입주민 프라이버시가 도출되었는데, 주로 교류공간으로써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나타났고, 대부분 우울감과 고독감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필요 교류공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주로 휴게 공간,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욕구가 있었으며, 그 외 입주민 프라이버시를 위한 동선 분리가 나타났다. 공동체성에서는 세대교류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개방, 이웃 안부, 공동체 프로그램이 도출되었는데, 공동체성 항목들은 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주요 욕구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대교류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으나,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세대차이에서 오는 갈등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공동체 프로그램은 정서지원에 긍정적 역할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친화성에서는 일자리 활동의 긍정적 인식과 노후 경제상황이 도출되었는데, 일자리 활동을 매개해 주는 공간으로써 복지시설이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복지시설 이용의 저렴한 비용도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넷째, 서비스 환경의 상위범주를 통한 공간계획 지표는 먼저 통합성에서는 연계적 서비스, 지속돌봄 서비스가 도출되었다. 주로 지역병원·보건소와의 연계서비스 지원 욕구가 강하였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인 건강의 지속돌봄 서비스 욕구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마련, 건강관리실 마련,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 접근성에서는 서비스 정보 접근성, 응급상황 서비스, 건강의료 서비스, 식사·생활지원 서비스, 서비스 공간 접근성이 계획지표로 도출되었으며, 주로 건강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컸고, 그에 따른 건강 공간의 욕구,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서비스, 식사 및 생활지원 서비스 욕구 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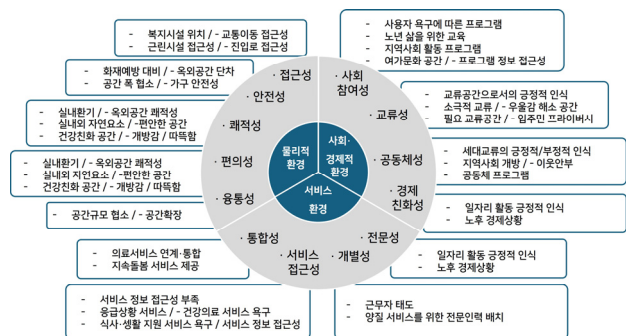
개별성 계획지표는 개별서비스 접근성과 서비스 자율성이 도출되었는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환경, 개인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환경, 개별 욕구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었으며, 긍정적으로 인식되

〈표 17〉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관점 사용자 심층면담 분석결과⁵⁾

구분		상위범주	조사대상자 인터뷰내용 종합결과																								계(%)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물리적 환경	접근성	복지시설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6(8.3)
		교통이동 접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14(19.4)
		근린시설 접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15(20.8)
	안전성	진입로 접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6(8.3)
		화재예방 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15(20.8)
		옥외공간 단차	-	-	■	■	-	-	-	-	-	-	-	-	■	-	-	-	-	-	-	-	-	-	-	-	-	9(12.5)
	쾌적성	공간 폭 협소	-	■	-	-	■	-	-	-	-	-	-	-	-	-	-	■	■	-	-	-	-	-	-	-	-	12(16.7)
		가구 안전성	-	-	-	-	■	-	-	-	-	-	-	-	■	-	-	-	-	-	-	-	■	-	-	■	■	14(19.4)
		실내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6(8.3)
	편의성	옥외공간 쾌적성	-	-	-	■	-	-	-	-	■	-	-	-	-	-	-	-	-	■	-	-	-	-	-	-	-	9(12.5)
		실내외 자연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16(22.2)
		편안한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15(20.8)
	융통성	건강친화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17(23.6)
		개방감	-	-	-	-	-	■	-	-	-	-	-	■	-	-	-	-	-	-	□	-	-	-	-	-	-	7(9.7)
		따뜻함	-	-	■	-	-	■	-	-	-	-	■	-	-	-	-	■	-	-	-	-	-	-	-	■	-	14(19.4)
	편의성	수직이동 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11(15.3)
		정보사인 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15(20.8)
		편리한 가구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6(8.3)
	융통성	편의시설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14(19.4)
		공간규모 협소	-	■	■	■	-	-	-	-	-	■	-	-	-	-	-	-	■	-	■	-	-	-	-	-	-	17(23.6)
공간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16(22.2)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 참여성	사용자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15(20.8)
		노년 삶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9(12.5)
		지역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6(8.3)
		여가문화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12(16.7)
	교류성	정보 접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8(11.1)
		교류공간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9(12.5)
		소극적 교류	-	-	-	-	-	-	-	-	-	-	-	-	-	-	-	-	-	□	-	-	-	-	■	-	-	6(8.3)
		우울감과 고독감 해소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13(18.1)
	공동체성	필요교류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16(22.2)
		프라이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12(16.7)
		세대교류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13(18.1)
		지역사회 개방	-	-	□	-	□	-	-	-	-	-	-	-	-	-	-	-	□	□	□	□	-	-	-	-	-	6(8.3)
	경제 친화성	이웃안부	-	-	-	-	-	-	-	-	-	-	-	-	-	-	-	-	-	-	-	-	-	-	□	■	-	3(4.2)
		공동체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5(6.9)
		일자리 활동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14(19.4)
		경제적 비용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서비스 환경	통합성	의료서비스 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18(25.0)
		지속돌봄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11(15.3)	
		서비스정보접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9(12.5)
	서비스 접근성	응급상황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9(12.5)
		건강의료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24(33.3)
		식사·생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성	서비스 공간 접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21(29.2)
		개별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5(6.9)
		서비스 자율성	-	-	-	-	-	-	-	-	-	-	-	-	-	□	-	-	-	-	-	-	-	-	-	□	-	2(2.8)
		전문성	근무자 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인력 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12(16.7)	

나 욕구가 크게 나타나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지표는 근무자 태도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가 도출되었다. 근무자 태도에 대한 의견은 상이하였으나, 조금 더 이용자를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상담인력 배치 필요,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과 책임감 필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자별 심층면담 조사내용을 분석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5) 부정(■:3), 중립(□:2), 긍정(□:1)로 표시, 평균점수 20.0 이상 항목을 볼드하여 처리하였으며, 그 외 언급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로 표기하였음.



〈그림 1〉 심층면담 조사분석을 통한 AIC 계획지표

5. 결론

본 연구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약 9년간 정착 과정을 거친 시점에서 실제 사용자의 이용현황과 문제점들을 통해 사용자 관점이 반영된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공간계획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고령자)들이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그들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으며,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한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혼란과 갈등이 조금씩 나타난 점도 있었으나, 조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두 이용자 간 차별이나 특징을 두지 않고, 서로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그리고 공동체로써 이웃 교류를 맺으며 잘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에서의 경험과 니즈, 요구, 인식 등은 농촌과 도시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기보다는 공간의 규모 확장, 다양한 건강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쾌적한 환경, 입주민 프라이버시의 확보 등 그들의 신체적 자립도, 거주유형, 이용목적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의 활용 가능성, 지역시설과의 연계 방안, 시설 내 공간 활용,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공간계획 방향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서비스 환경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지속거주 관점의 공간계획 지표를 활용하여 사용자 관점이 반영된 계획지표를 새롭게 도출할 수 있었다. 물리적 환경의 5가지 특성 중 주로 접근성과 쾌적성 항목에서 많은 니즈(needs)가 도출되었고, 사회·경제적 환경에서는 교류성의 내부 커뮤니티 지표에서 많은 니즈가 도출되어 사용자의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서비스 환경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에서 보다 많은 니즈가 도출되어 다양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서비스 공간에 불편사항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계획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고령자들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신체능력 저하 변화에 따른 돌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생활·의료·돌봄의 서비스가 복합·연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복지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역 커뮤니티권 내에 입지 할 수 있는 접근성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시설의 유형을 특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주거복지전문 인력의 확보, 지역 밀착형 돌봄서비스 등 지역사회 지속거주(AIC)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령자들만의 고립된 공간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의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C)를 위한 계획지표를 도출하여 사용자를 고려한 공간계획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각 특성에 따른 지표별 상위범주로 도출된 내용은 추후 공간계획 시 세부지표로 활용, 하위범주로 도출된 심층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여 보다 사용자 욕구가 고려된 계획 방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성적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대상자 수의 제한으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개인의 경험과 내면적 특성을 보다 솔직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Janice, B. (2013). Aging in Community: The Communitarian Alternative to Aging in Place, Alon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n Aging*, 37(4), 6-13.
2. Joan, K. D., Elizabeth, A. M., & Marilyn, Rantz. (2016). Aging in Community: Developing a More Holistic Approach to Enhance Older Adults' Well-Being. *Research in Gerontological Nursing*, 9(1), 6-13.
3. Joan, W. (2016). Response to the Commentary: Aging in Community. *Research in Gerontological Nursing*, 9(1), 14-15.
4. John P. K. & John L. M. (1993). Introduction to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s. *Evanston, IL: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1-6.
5. Kathy, B., Debra, D., & Tiffany, L. Y. (2015). Aging in Community: Mobilizing a New Paradigm of Older Adults as a Core Social Resourc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4(2), 1-25.
6. Kho, Y. H. (2020). *Age-Friendly Community Planning & Design Strategies for Inclusive Korea*. Seoul: Architectural Space Research Institute Publishing.
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Measures to strengthen housing stability for the working and middle class」.
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4). Press release.
9. Moon, J.Y. & Hwang, Y.S. (2023). A Study on the Evaluation Index of Welfare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for Aging in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32(2), 1-13.
10. Nam, J. H. (2020). *Enhancing Aging in Community Approaches to Elderly-Friendly Neighborhood Plan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1. Park, Y. R. & Park, K. S. (2015). Human-Centered Paradigm for Aging Society: Aging in Place and Long-Term Care. *Long-term*

care research, 3(1), 134-155.

12. Statistics Korea. (2023). Statistics on the elderly.
13. Stone, R. (2016). Successful Aging in Community: The Role of Housing, Services, and Community Integr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n Aging*, 40(4), 67-71.
14. Thomas, W. & Blanchard. (2009). J., Moving Beyond Place: Aging in Communit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n Aging*, 33(2), 12-17.

[논문접수 : 2024. 09. 28]

[1차 심사 : 2024. 10. 14]

[2차 심사 : 2024. 10. 21]

[게재확정 : 2024. 10. 21]